

SBI골프단의 2021시즌 선전을 기원합니다!



김아림

'20 제75회 U.S. 여자오픈 우승
'19 MY문영 챔피언십 우승

이소미

'20 휴먼케어 여자오픈 우승
'20 BC-한경 레이디스컵 2위

박수빈

'20 E1 채리티 오픈 21위
'19 드림투어 상금순위 11위

김다은

'20 점퍼투어 시즌 6위
'19 국가대표 상비군

신보민

'20 드림투어 시즌 13위
'17 드림투어 시즌 95위

희망저축

SBI저축은행 매거진
Spring 2021 Vol.29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자유요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은 행복이다

Mary Wollstonecraft



희망저축

SBI저축은행 매거진
Spring 2021 Vol.29

발행일 2021년 4월 8일

발행인 정진문, 임진구

발행처 SBI저축은행 홍보팀

담당 유형근 주인(02-3416-421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빌딩 동관 9층

기획·디자인 디스토리

웹진 sbiwebzine.co.kr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349(2021.04.07.)

Winter 2021 Vol.29

CONTENTS

Life+

04 SBI 체험현장
온가족 '톡톡딸기' 체험

10 SBI 금융상품
<사이다뱅크> 환전지갑, NICE신용관리서비스 오픈

12 SBI pick's
이번 주말 SBI인에게 추천하는 OTT 드라마

14 유튜브 중계
하루의 심포 같은 힐링 채널들

News+

20 세상읽기
한국은 'ESG 혁신' 중, ESG 경영이란?

24 SBI 포커스
기업PR 캠페인_ SBI의 CF스타 S★B★I

28 New Face
2021년 신입사원, 강윤기 사원 외 11명

32 SBI 희망뉴스
2021년 1분기 주요소식

34 열린 편집실
편집후기 / 다른그림 찾기

비타민이 그리워지는 봄, 봄은 벌써 왔지만 싱그런 초록이 보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딸기 따기 체험을 직접 해보고, 달콤한 딸기잼도 만들어 봐요.

참여 : 핀테크지원팀 조용호 과장, 부인 황문정, 아들 조승현, 딸 조아현
※ 코로나19 '방역 가이드'를 준수하며, 참가자 외 접촉을 최소화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따고, 맛보고, 만들고
딸기농장체험

온가족 '톡톡딸기' 체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 아침, 촉촉한 봄비를 맞으며 딸기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양한 활동과 여행에 큰 제약을 받아왔던 터라, 가족 모두 오랜만의 나들이에 신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둘째를 제외하고 연례행사 처럼 딸기를 따왔습니다. 이번에는 둘째도 같이 가게 되었네요. 역시나 아현이는 낫선 딸기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신기하면서도 무서운지 아빠 품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승현이와 아내는 어느새 딸기 수확에 여념이 없고, 따기도 하면서, 몇 개는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둘째에게 딸기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떻게 따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 품 안에서만 있던 둘째도 시간이 흐르자 놀이터에 온 것 마냥 신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뽀싸 너무 신이 났던 것일까요? 딸기밭 웅덩이에 철퍼덕! 하지만 금세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느덧 플라스틱 팩에 가득 담긴 딸기를 갖고 하우스를 나왔습니다. 딸기체험 농장에는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딸기잼 만들기’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일이 딸기를 으깨고, 뜨거운 술에 연신 저어가며 맛있는 딸기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접 만든 딸기잼을 먹어보니 더 맛있는 것 같으며 아이들은 열심히 딸기잼을 통에 담습니다. 완성한 딸기잼은



딸기잼 만들기 체험

딸기 1kg 정도면 작은 딸기잼 단지 2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딸기를 씻어 조물조물 으개 줍니다. 설탕 40, 딸기 60 비중으로
 섞은 뒤 타지 않도록 살살 저어 주며 끓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보다 유통기한이 적지만, 천연의 달콤함이 담긴
 딸기잼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딸기 케이크 만들기

제과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크림 딸기 케이크.
 케이크 빵 위로 생크림을 겹겹이 바른 후 딸기 장식을 해주면 금방 맛
 좋고, 그럴싸한 케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금 딴 딸기로 요래 조래 장식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체험입니다.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한 병씩 전달해 드렸습니다. 손주들이 만든 딸기잼이
 라는 말에 양가 조부모님 모두 잘 먹겠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딸기잼뿐만 아니라
 맛있는 딸기케이크도 만들었습니다. 케이크 빵에 시럽과 생크림을 바르고,
 빵 사이사이 딸기를 가득 넣은 케이크는 보기에도 예뻐고, 맛도 너무 좋았습니다.
 케이크에 딸기를 하나하나 장식하는 첫째와 생크림을 일단 입으로 가득 넣는
 둘째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딸기농장 체험은 오랜만에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SBI 임직원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는 딸기농장에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
 보시는 것은 어떠 실까요? 이날 딴 딸기 덕분에 당분간 저희 집은 매일매일 '딸
 기파티'가 열릴 예정입니다.



메아리 딸기농장은 양평 두물머리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사장님 내외가 딸기 따기, 딸기잼
 만들기, 딸기 케이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딸기체험은 3~5월 사이에 이뤄집니다.

봄이 완연해 지면 두물머리 찾는 관광객이 많아서
 일찍 나서야 합니다.

- 문의전화 : 010-3198-7681
- 위치 :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 108-15
- 홈페이지 : meari365.com



모바일 전용 뱅킹 서비스 사이다뱅크. 사이다뱅크의 강점은 금융을 넘어 유통, 포털 등 경계를 넘나드는 적극적인 제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고객 니즈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이다뱅크의 새로운 '콜라보 서비스'를 알아보자.

사이다 선을 넘는 혜택, 사이다뱅크로 다 모여!

디지털뱅크의 혁신을 '손잡다'

사이다뱅크는 고객의 금융서비스 혜택 확대를 위해, 선을 넘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객에게 혜택만 줄 수 있다면,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다는 오픈 마인드! 지금까지 사이다뱅크는 신한카드 등 금융사와의 제휴를 통한 금융상품 출시뿐만 아니라 간편 결제를 위한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와 손을 잡는 등 많은 제휴를 진행하였다. 제휴 서비스는 서로 다른 업종 간의 강점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여주지만, 보수적인 기존의 금융사에서는 서로 간의 선을 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사이다뱅크는 계속 선을 넘고 손을 잡을 것이다. 왜냐고? 디지털금융의 혁신을 담은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사이다뱅크의 '선을 넘는'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은행과 손잡고, 외화 환전서비스 '환전지갑' 오픈

SBI저축은행과 하나은행의 함께 오픈한 '환전지갑'은 미국(USD), 일본(JPY), 유럽 연합(EUR), 호주(AUD), 캐나다(CAD), 스위스(CHF), 중국(CNY) 등 12개국의 통화 에 대해 1일 100만원 한도로 모바일 앱으로 환전이 가능한 서비스다. 특히 미국 (USD) 통화에 대해서는 거래실적 조건 없이 최고 90%의 우대환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모바일 앱 <사이다뱅크>를 통해 환전을 신청해, 환전지갑에 보관, 필요할 때는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환율 좋을 때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신청하고, 시간 날 때 찾는 환전지갑. 환전지갑 기능에 고객들이 환율차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는 물론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 선물하는 '환전지갑 선물하기' 등 다양한 외화환전 서비스 혜택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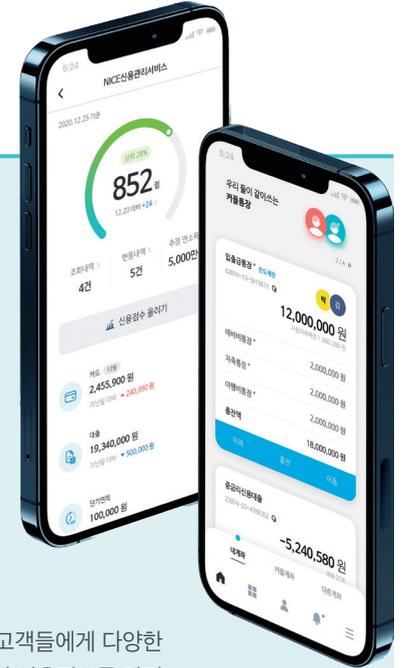
사이다 BANK SBI 저축은행 × 하나은행 환전지갑
최대 90% 환율 우대



NICE평가정보(주)와 함께 사이다뱅크 'NICE신용관리서비스' 오픈

사이다 BANK SBI 저축은행 × NICE평가정보(주) NICE

이제! NICE신용정보로 확인하세요.



국내 1위 저축은행 모바일플랫폼과 NICE평가정보가 만나 고객들에게 다양한 신용관리 혜택을 제공한다. 사이다뱅크 이용고객이라면, 개인 신용정보를 간편 인증을 통해 손쉽게 조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다뱅크 NICE신용관리 서비스는 개인신용평점, (추정)소득정보, 신용조회 및 변동내역, 카드 및 대출 정보 등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동일 성별, 연령대의 신용평점과 비교까지 해볼 수 있다. 또한, 동일연령의 대출금액, 카드사용금액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신용관리 상태가 '양호'한지 '주의'가 필요한 수준인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사이다뱅크를 통해 고객들은 앞으로 꼭 필요한 신용정보를 손쉽게 접근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사이다뱅크는 신용평점, 대출정보, 카드정보가 변동되거나 신용조회 사실이 발생할 경우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고객의 적극적인 신용평점 관리를 돕기 위해 신용평점이 낮을 경우 상향 신청할 수 있는 '내 신용정보 갱신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 신용정보 갱신' 서비스는 NICE평가정보에 나의 정확한 소득정보를 제공하여 신용평점을 상향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비스다. 신용평점 결정에 반영되는 소득 정보를 정확히 등록함으로써 고객의 신용 평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사이다뱅크가 돕는다.

앞으로 SBI저축은행은 사이다뱅크 이용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신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주말 SBI인에게 추천하는 OTT 드라마

OTT 플랫폼은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새로운 문화다. 텔레비전 시청을 올드한 매체로 만들 정도로 구별된다. 전세계 콘텐츠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하게 만든다. 누군가의 낱살 좋은 하소연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 지난 주말에 12시간 꼬박 정주했잖아!"

요즘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이들을 볼 수 있다. 고화질의 영상 데이터를 모바일로 보낼 수 있는 기술과 개인방송국까지 TV만 보던 시대는 사라진지 오래다.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일컫는데 디바이스나 시청 공간, 시간, 지역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얼마 전 외국인 친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드라마 "킹덤(Kingdom)" 이야기가 나왔다. 킹덤? 새로 개봉한 헐리웃 영화인가? 싫어 듣기만 하던 나에게 누군가 물어왔다. "코리안 좀비에 관한 것인데, 정말 너희 나라의 배경이 맞느냐?"고... 그제서야 '넷플릭스(Netflix)'에서 방영한 한국 드라마라는 걸 기억하게 되었다. '넷플릭스(Neflix)', '왓챠(Watcha)', '유튜브(Youtube)' 덕분에 한국 드라마가 외국인에게 아주 손쉽게 전달된다. OTT 플랫폼 덕분에 장소에 상관 없이 앉은 자리에서 지구 반대편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수많은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보고 싶은 것도 봐야 할 것도 심지어 이미 보았던 것을 다시 보기도 해야 한다. 누군가는 한참 히트 쳤던 '스카이캐슬', '슬기로운 감빵생활'과 같은 예전 드라마에 빠져 시간을 보내고, 또 누구는 해외 유명드라마를 섭렵한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나홀로 집에 시리즈' 혹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본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OTT를 통해 '뽀로로 대모험'을 틀어 아이들의 관심을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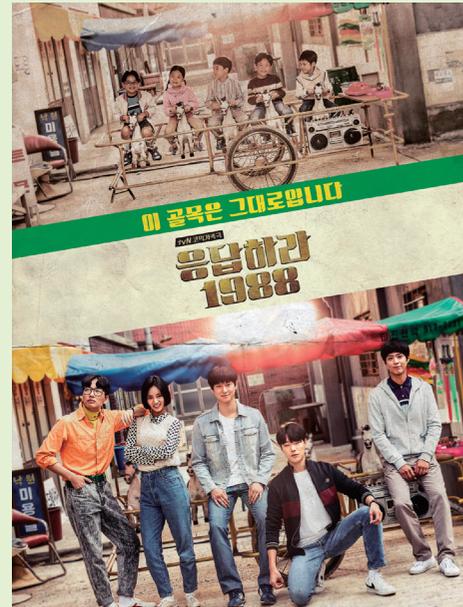
날마다 집계되는 통계는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주로 보는 콘텐츠의 순위 정보를 알려주고, 몇 줄의 설명을 보고 무심하게 클릭해 또 몇 시간을 즐길 수 있다. OTT가 가져온 변화는 단지 콘텐츠의 다양화가 아니다. 드라마는 TV로만 보는 것, 본방 사수가 전편이라는 생각을 고루하게 만든다. 다 모아져 있다. 몸은 편해진 거 같은데 이것저것 골라 보다 보니 잠시의 틈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또 바빠다.

"OTT 플랫폼은 집에 있는 사람들을 더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응답하라 1988

쌍팔년도 쌍문동, 한 골목 다섯 가족의 왓지컬 코믹 가족극
 편성 : tvN 2015.11.06 ~ 2016.01.16 20부작
 연출 : 신원호 / 극본 : 이우정
 시청률 : 18.8% (닐슨코리아)
 출연 : 성동일, 이일화, 헤리, 류준열, 고경표, 박보검, 이동휘 등
 시청 가능 OTT : 넷플릭스, TVING



SBI 한줄평

이웃하면 증간소음을 먼저 떠올리는 딱딱한 지금과는 달랐던 시절
 김지은 주임 | 일산지점

누군가에게 '아 그뻐 그랬지', 누군가에게 '아 저뻐 저했구나'
 유영수 사원 | IB2팀

지극히 평범했고 한없이 행복했던 우리들의 일상
 장동록 이사 | 임원

울고 웃고를 매해마다 반복하는, 일상을 따뜻하고 재밌게 그려낸 드라마
 인세영 주임 | 포항지점

7080세대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OST가 또 한 몫 했죠
 형승희 과장 | 기업금융2팀

※ 베스트 한 줄 평에 선정되신 분들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미지 : 넷플릭스, tving

하루의 심포 같은 힐링 채널들

몇 년 전부터 힐링을 키워드로 하는 서적, 음악, 여행 등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엔 유튜브에도 힐링 바람이 불었다.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하루의 심포 같은 유튜브 채널을 모아 소개한다.



직장인 자취 일상
비오는 날 공원에서 도시락 먹기



이미지 : @YouTube 강과장, 오노른, 하지용담기

유튜브 힐링 채널?

힐링이란 사전적 의미로 몸이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힐링은 좀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음악을 듣거나, 보기만 해도 편안한 풍경에 빠지는 것도 모두 힐링. 오늘날의 힐링은 누군가 요리를 하는 일상적인 영상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 힐링을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의 스펙트럼이 넓은 이유다.

힐링 채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형식으로는 '일상 브이로그'를 꼽을 수 있다. 일상 브이로그는 개인의 소소한 하루하루를 마치 일기를 쓰듯 영상으로 기록한다. 사실 주인공들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자기 고백적인 영상은 진솔함과 진정성을 모두 채긴다. 녹록지 않은 이들의 인생 이야기에 사람들은 공감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일상 브이로그가 담고 있는 주제도 직장 생활부터 돈, 가족 관계, 연애, 친구 등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유독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브이로그를 포함한 힐링 채널들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유튜브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 미디어가 다소 일방적으로 정보나 재미를 전달했다면, 유튜브는 댓글 기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같은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자들은 누군가 쓴 글을 보면서 비슷한 감정에 젖는다. '나 혼자만 아닌 누군가 함께 한다'는 동료애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은 영상을 보는 이에게 위로를 선사한다.



동네 친구를 만났어요.



한 집안 식구나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있으면 나도 저들어주고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이 집에서 저들어주고



이미지 : ©YouTube 강과장, 오노론, 허지용담기

개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에서 나아가 아예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거나 다른 사람의 고민을 상담하는 콘텐츠도 '힐링'이란 콘셉트 안에 존재한다. 이 같은 영상에 달린 댓글은 공감이나 위로 혹은 응원의 메시지로 고민하는 사람은 물론 이를 보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안을 준다. 내용이나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람들에게 작은 울림을 주는 힐링 채널 3개를 추천해 본다.



남들처럼 멋지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었다.



직장인 자취 일상



점심은 도시락

이미지 : ©YouTube 강과장

힐링 채널 1

강과장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 강과장의
일상 브이로그



강과장의 유튜브 시작은 소소했다. 개인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그중 한 영상이 소위 대박을 친 것. '서울 10년 동안 6번 자취방 이사한 이야기'는 누적 조회수 360만이 넘는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서울에 상경한 뒤 이곳저곳 자취방을 옮겨 다닌 과정은 그야말로 눈물겹다. 전세 2천만 원에서 시작해 6년 만에 1억 이상을 저축하여 강남에 방을 얻었고, 재테크에 눈을 뜬 뒤 다시 4천만 원짜리 원룸으로 옮겼다. 그의 치열한 생활기는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사실 강과장에겐 팬돌이란 별명이 있다. 도시락을 싸 갖고 다니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팬네 풀풀 풍기는 모습은 때로 웃음을 유발하지만 진한 여운을 남긴다. 낮은 톤의 목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그가 전하는 이야기엔 진심이 담겨 있다.

강과장은 최근 4평짜리 원룸에서 10평 넘직한 투룸으로 이사했다. 이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공상맛게 생활하던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은 마치 누군가의 성장기를 보듯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다. 볼수록 매력 있는 강과장 채널이 가진 힘이다.



힐링 채널 2

오느른



리틀 포레스트를 꿈꾸며
시작한 최별 PD의
시골살이



복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상은 직장인이자라면 한 번쯤 해봤을 상상이다. 그런데 이런 꿈같은 일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다. 바로 유튜브 오느른 채널의 주인공 최별 PD. MBC 시사교양국의 최별 PD는 전라북도 김제의 작은 마을에 무려 115년 된 폐가를 4천5백만 원에 구입했다. 오로지 자신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폐가 리모델링을 시작한 것. 이후 소속 방송국의 인증을 받아 현재 MBC 공식 유튜브란 호칭을 얻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어른들을 뜻하는 오느른은 30대 여성의 자기 성찰을 중심으로 옆집에 사는 이여사, 아흔 살이 넘은 동네

어르신 친구 등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가 꾸밈없이 펼쳐진다. 최근엔 자신의 아버지가 시골집에 등지를 트기도 했다. 소박한 시골살이 브이로그가 따뜻함을 선사하는 건, 삭막한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이웃 사람들의 정이다. 집들이를 하고 함께 메주를 만들고 음식을 얻어먹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여기에 영상미도 빠질 수 없다. PD란 직업은 속일 수 없는지 오느른의 영상은 군더더기 없이 편안하다. 아날로그 풍의 글 자체까지 소위 감성을 자극한다. 평화로운 음악으로 꾸민 영상과 시골 소리를 채집한 자연을 담은 ASMR은 덤이다.



이미지 : ©YouTube 오느른



이미지 : ©YouTube Her Answer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고 고민을 토로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방송인으로도 유명한 Her Answer 작가가 사연을 들은 뒤, 자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한다. Her Answer 작가가 진행하고 미디어커머스 기업인 블랭크코퍼레이션이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Her Answer'의 인트로다.

Her Answer는 브이로그와 달리 아예 타이틀부터 '고민 상담소'를 달았다. 상담 주제는 다양하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부터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까지. 일견에 따르면 방송으로 적당하지 않은 민감한 주제는 자체적으로 거른다고 한다.

사실 Her Answer 작가는 악성 림프종으로 항암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인기 있는 방송인에서 암투병환자라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가 전하는 말들은 뼈아프지만 깊이가 남다르다. 다소 거친 표현 속에 숨겨져 있는 Her Answer 작가의 인간적인 면도 엿볼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사연을 올린 사람과 직접 통화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는다. 그가 남기는 "좋은 일 밖에 없으실 겁니다"라는 말은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남긴다.

Her Answer는 시즌1을 시작으로 현재 시즌2가 마무리된 상태.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Her Answer 시즌3을 기대해 본다.

힐링 채널 3

Her Answer



Her Answer 작가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 수 있는 고민 상담소



한국은 'ESG 혁신' 중, ESG 경영이란?

최근 많은 기업의 2021년 신년사에 ESG가 등장하고 있다. ESG는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약자로 이윤을 목적으로 모인 전통 기업의 룰이 사회적 기업 시민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ESG의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ESG는 경영 트렌드인가?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and Governance(지배구조)로 대표되는 ESG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키워드다. 다소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 내외부에서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등이 집약적으로 구현되기에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주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ESG 경영을 선언하며 관련 원칙을 제정하였고, 국민연금 등 공익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기업 역시 ESG 성과를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를 결정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4차 산업혁명이 확대되면서 더 확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빠른 정보의 공유로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도 ESG 경영 촉발에 작용하였다. 기업의 원래 목표인 효율성과 재정적 가치 창출은 물론이요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며 공정함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확산되고 있다.

ESG는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키워드에서 드러나 듯이 이익, 성장 중심에서 '가치 있게 돈을 버는 기업'에 더 주목하고 높은 평가를 부여한다. ESG는 기존의 기업 투자 방식을 180도 바꾸게 한 경영 트렌드로 부각되었다. '착한경영', '가치경영'으로 대두되는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 기업 순위를 다르게 정하는 새로운 원칙이다. 이는 기업 스스로 사업 투자를 결정할 때 '사회책임투자(SRI)' 또는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함을 뜻한다. 사회적 책임 투자는 사회,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 방식은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의 행동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국가 단위에서 중요한 아젠다(Agenda)로 고려되었으나, 이제는 기업과 투자자 등 개인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으로 확대되었다.

ESG 경영의 사회적 가치

과거 기업들은 재정적 가치 상승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왔다. 따라서 비용절감과 효율은 경영활동에서 그 어떤 요소들 보다 우선 시 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 탈 규제 경제 환경이 시작되면서, 뉴노멀의 한 축으로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진화된 새로운 가치를 기대하게 되었다. ESG 가치 경영의 핵심은 이전의 경제적 성장, 주주의 이해관계에만 치중하였던 운영방식에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세심하게 살피는 운영방식으로 변화의 시작이다. 이러한 현상은 회사의 롱런(Long-run)을 위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방안으로 선택적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경영에서의 ESG 성과가 기업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ESG 경영은 빠르게 확산되어 왔으며 유엔 책임투자원칙(UNPRI, Principle Responsible Investment) 역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의 핵심 원칙으로 ESG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2021년에도 경영·소비·투자 등 경제전반에 걸쳐 ESG를 반영한 경영은 이제 기업경영활동 곳곳에 스며든 상태다. 유럽의 기업들은 매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ESG 평가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ESG 성과의 평가기준은 친환경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근로자와의 관계를 위해 회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등을 포함한다.

ESG 경영을 시도하는 한국기업

국내에서도 ESG 경영을 선언한 기업들은 이제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SK그룹은 전사적 차원에서 ESG 경영을 선언하였다. SK는 계열사 16곳에 ESG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그룹 내에 환경사업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 아젠다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으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위원회를 신설하였다. SV(사회적 가치) 담당조직을 ESG 전략실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사회적성과인센티브(SPC)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제적으로 바스프·도이치뱅크와도 협업을 통해 영리법인 VBA(Value Balancing Alliance)를 만들어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국제 표준 제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삼성그룹 역시 마찬가지로 전사적 차원의 ESG 경영을 선언하였다. 2021 신년 기업 목표를 발표하면서 ESG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특히 탄소 배출과 관련하여 한국경제가 탄소이슈에 관하여 미온적 대처를 할 경우 글로벌 벨류체인(Global Value Chain)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삼성물산은 2020년 10월 석탄 관련 신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석탄 사업도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삼성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보증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방침을 세웠다.

국내 다른 기업으로는 대표적인 화장품 뷰티 유통체인인 '올리브영'이 있다. 이 회사는 환경 이슈와 관련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올리브영은 클린뷰티 캠페인과 생분해 플라스틱을 자사 제품에 적용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브랜드에 별도의 엠블렘을 부착하여 환경과의 상생을 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포장재 역시 크라프트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을 기업차원에서 실천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종이 영수증 대신 스마트 영수증의 도입으로 UN 선정 국제 친환경 인증 GRP(Guidelines for Reducing Plastic Waste, 플라스틱 저감 가이드라인) 우수등급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ESG 경영 가치를 선구적으로 실행하는 국내 기업들은 인지도뿐만 아니라 사업적 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리브영의 경우 국내 뷰티 유통 브랜드에서 2015년 이후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을 정도로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비재무적 가치추구는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상생과 통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SG 경영, 불확실한 미래를 장밋빛 미래로 바꾸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국내 선두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즉 오래도록 살아 남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각각의 책임을 다하며 이윤 창출의 기회를 붙잡는 것이 100년 기업, 위대한 기업이 되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SBI가 SBI를 찾습니다



SBI의 CF스타 S★B★I

세상의 모든 S.B.I를 찾는 <SBI가 SBI를 찾습니다> 프로젝트! 당신의 이니셜이 S.B.I라면 사연을 접수하여 TV광고 모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SBI들의 응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TV 광고로 CF스타로 거듭난 상범이네&신별이의 근황과 새롭게 등장한 S.B.I 신병일씨의 매력을 공개합니다!

CF스타 S.B.I 그들의 근황은?

TVCF에 등장하여 모자간의 케미를 보여주었던 도깨비시장의 '상범이네' 도너츠! 영국인 유튜버 듀오 <단앤조엘>이 도너츠 먹방을 찍으러 도깨비 시장을 방문했다. 전국구 맛집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소문이 들리는 상범이네 도너츠! 과연 그 근황과 진실은? TVCF에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배우지망생 '신별이'. CF 촬영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는 그토록 원하던 '진짜 배우'가 되었을까?

<SBI가 SBI를 찾습니다>에서는 매월 'Monthly SBI'를 선정하고 있다. 이 중에 '2월의 SBI'로 선정된 색소폰 연주가 '손병일'씨를 <섬이네TV>가 찾아갔다. MC를 뛰어넘는 화려한 입담과 개그감으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손병일씨. 그의 전매력을 알아보자!
지금부터 스타로 거듭나고 있는 S.B.I들의 근황을 공개합니다!

SBI저축은행 X 단앤조엘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SBI 광고캠페인
방학동 도깨비시장 맞집 '상범이네' 탐방기

지난 TV 광고에는 방학동 도깨비시장에서 가족이 함께 도넛 가게를 운영하는 상범이네 가게가 비쳐 소소한 웃음과 훈훈함을 전해주었다. 상범이네는 이번엔 영국인 유튜버 단앤조엘의 방문으로 랜선을 탔다. 단앤조엘은 영국인 단과 조엘로 구성된 2인조 유튜버다. 이 두 이방인은 한국 문화 체험, 한국 사람들과의 이야기 소통, 한국 음식 먹방 등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 골목에 자리한 상범이네 가게에서 먹방을 선보였다.

단앤조엘의 렌즈에 담긴 전통 빵 장인의 현란한 손놀림과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커다란 찜솔이 현장감을 더했다. 여기에 더해 '배개처럼 폭신한 식감', '하루 종일도 먹을 것 같은 갓 튀긴 꼬빼기 맛'과 같은 소회와 감탄사가 상범이네 가게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욕구를 자극했다. 손님이 많을 것 같다는 질문에 상범이네는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긴 한데, 다행히 이제 TV 광고 찍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죠. 전국에서 택배 전화도 많이 주시고요."라며 SBI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전통시장 사업장들을 홍보해 소상공인들을 응원하자는 캠페인의 취지가 빛나는 순간이었다. SBI는 또 다른 S.B.I인 상범이네가 전국구 맛집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 모두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





신별이 배우 만들기 프로젝트

SBI와 SBI(신별이)의 꿈을 향한 도전기

(S)슬기로운 (B)배우 (I)일기



SBI와 SBI(신별이)의 꿈을 향한 도전기

S [슬기로운] B [배우] I [일기]

지난 TVCF에서 배우 지망생으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춘의 모습을 보여줬던 신별이. 특유의 밝은 모습과 꿈을 향한 긍정적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하지만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무대들이 사라졌고 배우 지망생들은 더욱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그녀에게 힘이 되기 위해 SBI저축은행이 함께 한다. 시작합니다. 신별이 배우 만들기 프로젝트!

<신별이 배우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신별이는 SBI저축은행과 함께 매월 새로운 연기에 도전하며 배우로 성장하는 모습 한 컷 한 컷이 영상에 담길 예정이다. 신별이는 '시작이 반이다'(SBI)를 시작으로 매월 다양한 연기에 도전하며, 이음하여 SBI와 SBI(신별이)의 꿈을 향한 도전기, '슬기로운 배우 일기'를 써내려갈 예정이다. 점차 배우로 성장해 나가며, 스스로를 깨닫게 될 신별이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SBI저축은행은 젊은 S.B.I의 도전을 응원하고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지원할 것이다. 신별이 티징 영상은 SBI저축은행 공식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월간SBI X 섭이네TV

매주 매달 다양한 사연을 가진 S.B.I를 찾아서

이달의 SBI 색소폰 연주가 손병일(Son Byeong Il)

지난 2월에는 색소폰 연주자 손병일 씨가 이달의 SBI로 선정돼 유튜브 채널 '섭이네 TV'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섭이네TV는 국민 MC를 꿈꾸는 청년 MC 섭이가 다양한 인터뷰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채널이다. 50년 연주 경력을 가진 손병일 씨는 일명 '아재 개그' 또는 '드립'으로 통하는 입담을 선보이며 웃음을 선사했다.

손씨가 연주할 때 풍기는 진지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MC 섭이와 개그 경쟁 구도를 보이자 시청자들은 "증말 웃겨... SBI 방송 체질이성!", "재미난 분이시네요." 같은 댓글을 남겼다. 손병일 씨는 이니셜 SBI의 원조가 아니냐는 MC 섭이의 질문에 "그렇지도 모르겠다. 특히 등록이라도 해놓을 걸 그랬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경제적 상황이나 공연 횟수가 많이 달라졌지만, 유튜브를 통해 소통을 지속 중이라며 '요즘 같은 때 남의 일 같지 않은' 자신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손씨의 사연을 소개함으로써 이번 SBI 캠페인은 또 한 명의 SBI와 원만한 셈이 되었다.



2021 SBI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얼마나 설레었던가? 첫 직장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꿈도 희망도 가득 찬 SBI의 당당한 얼굴들을 만나 봅시다.
2021년 SBI 대졸 공채 29기입니다.

- Q1. 입사통보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던 사람은?
- Q2. 'SBI저축은행' 입사 후 회사에서 배우고 싶은 것?
- Q3. 나를 나타내는 '부캐'가 있다면?
- Q4. 2021년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
- Q5. 직장동료가 된 SBI인에게 하고 싶은 말?



김동현 SI1팀

- Q1. 친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늘 좋은 곳 취업하라고 응원해주셨는데, 응원에 보답해드린 것 같습니다.
- Q2. 여신 업무를 잘 배워 여신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선배님들 많이 보고 배워서, 여신 개발자로 성장하겠습니다.
- Q3. '자연인'? 등산, 캠핑, 스노클링 등 자연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 Q4.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소홀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3회씩 꾸준함을 목표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올 한해 보내고 싶습니다.
- Q5. 지금은 부족하지만 빠르게 채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배님들로부터 예뻐 받는 SBI인이 되고 싶습니다.

강운기 IT개발팀



김병민 심사기획팀

- Q1. 가장 먼저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용돈을 챙겨주시던 부모님께 이제는 제가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 Q2. 회사에서 기업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 Q3. 친구들에게 맛집 추천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병술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 Q4. 취업 후 많이 나타해졌는데, 도전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Q5. 선배님들께 열심히 배워 조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여름 개인신용전략팀

- Q1. 합격 통보 당시 옆에 있던 엄마가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항상 제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뻐해주셨기 때문입니다.
- Q2. 일할 때는 확실하게! '일잘러'가 되기 위해 배우며 성장하겠습니다.
- Q3. 학창시절 내내 반장, 전교회장, 과대표를 맡았던 터라 '남회장'으로 모임을 주도합니다.
- Q4. 올해는 꼭 장롱면허를 탈출해서 바닷가 앞 포장마차로 금요일 밤 떠나는 버킷리스트 해보고 싶습니다.
- Q5.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신입사원으로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류혜주 개인신용전략팀

- Q1. 부모님이 가장 생각났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동안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 게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 Q2. 첫 직장인만큼 금융권 개발 업무부터 사회생활까지 모두 배우고 싶습니다.
- Q3. 동네 주변 산책을 좋아해 <서초구 보안관>이라고 불립니다.
- Q4. 코로나가 끝나고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Q5. 처음인만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워든 배우는 자세로 직장생활에 임하겠습니다!

류제호 IT개발팀



- Q1. 제일 사랑하는 저희 가족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가치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 Q2. 신용평가시스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선배님들에게 데이터로 큰 가치를 발견해낼 수 있는 통찰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 Q3. 취미부자! 최근에는 클라이밍, 주짓수,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 Q4. 일기장을 엮어, 저만의 에세이를 출판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소울 했던 사람들 만나고 싶습니다.
- Q5. 선배님들, 동기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성장하며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SBI인 여러분!



전용우 기업금융3팀

- Q1. 부모님입니다. 취업준비를 하면서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 Q2.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언행이 미치는 영향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겠습니다.
- Q3. 어떨 땐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해서 저의 부캐는 '멍'입니다.
- Q4. 행복을 찾아 떠나는 삶을 소망합니다.
- Q5. 앞으로도 SBI 선배, 동료들과 함께 걸어가는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이효형 IT운영팀



- Q1.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다보니 부모님께 가장 먼저 보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 Q2. 입사 후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선배님들의 '영업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 Q3. <버즈>라는 부캐가 있습니다. 평소에 노래방에 가면 '버즈' 노래만 부릅니다.
- Q4. 2021년 정말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은 운동으로 키운 멋진 근육입니다.
- Q5. 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상훈 정보보호팀

- Q1.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대학생활하며, 취업준비하며 용돈도 제대로 못챙겨드려서 드디어 용돈을 드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 Q2. 회사생활의 즐거움과 뿌듯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 Q3. 버스, 트럭, 승합차, 전기차, 승용차, 경차 등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만능 '오기사'입니다.
- Q4. 평범하지만 어쩌면, 그게 더 소중한 거 같습니다. 조용하게, 무사히 2021년을 마치고 싶습니다.
- Q5.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상욱 기업금융2팀

- Q1.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취업과 관련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고 기다려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Q2. 재치 있고 유능한 SBI인 선배님들의 직장생활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 Q3. 학창시절, '핫 Hot 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사에 열정적인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Q4. 코로나가 종식되어 소중한 사람들과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 Q5.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 후에 꼭! SBI인의 귀감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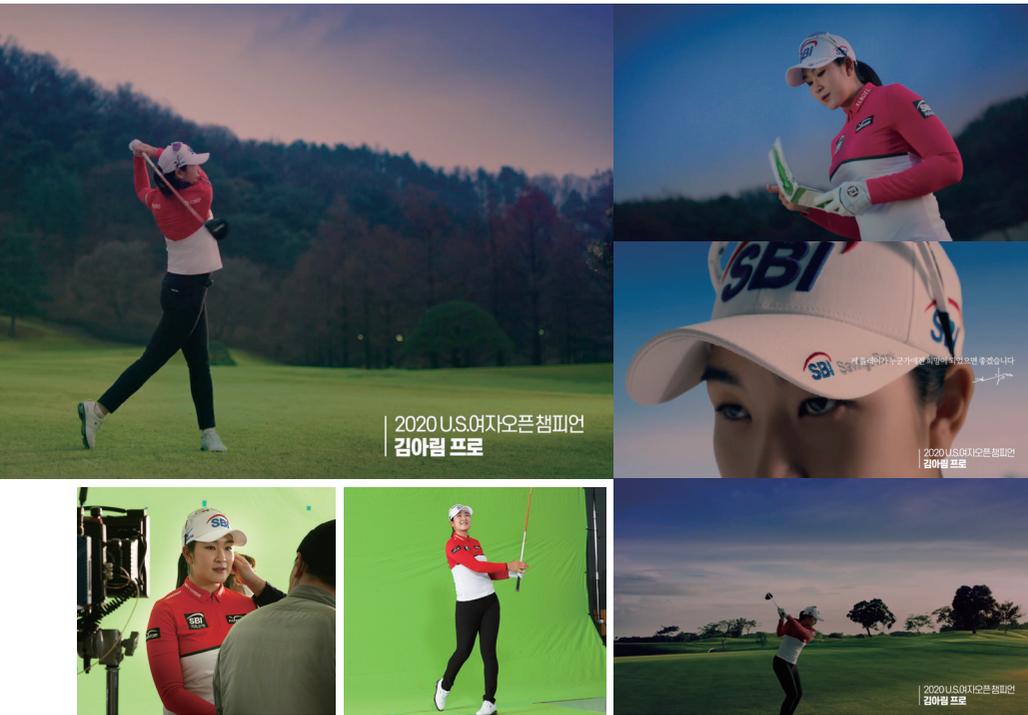
유성중 기업금융1팀

- Q1.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취업준비할때 늘 응원을 해주셨던 부모님에게 이제 보답을...
- Q2. 첫 직장, 모든 게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1부터 100까지 모두 배우고 싶습니다.
- Q3. 아직은 직장생활에 적응하라, 일 배우라. 주캐만도 벅차서 부캐는 당분간 없습니다.
- Q4. 21년에는 자격증 취득에 올인할 생각입니다.
- Q5.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SBI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허정연 SI2팀

- Q1. 다들 똑같은 텐데, 2년여 기간의 취준 기간 동안 걱정과 격려도 해주신 부모님입니다.
- Q2. 선배님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 한 가지라도 더 배울 수 있는 적응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 Q3. 자전거 라이더, 대학교 때부터 사이클을 좋아해서 지금도 남산과 북악산 코스를 다닙니다.
- Q4. 후배를 받았을 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든든한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싶습니다.
- Q5. 29기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U.S.여자오픈 우승 김아림 프로 SBI저축은행 광고모델 되다!

작년말 LPGA투어 U.S.여자오픈으로 대한민국의 큰 감동을 안겨줬던 김아림 프로가 SBI저축은행 광고모델이 되었다. 4월에 온에어한 이번 광고에서는 프로골퍼로서 LPGA우승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김아림 프로와 이 여정에 함께 하였던 SBI저축은행을 담았다.

이번 광고에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샷을 날리며 묵묵히 연습하는 김아림 선수의 모습과 2018년 루키 시절부터 후원하며 힘이 되었던 SBI저축은행의 '힘이 되는 1등 저축은행'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며 김아림 프로와 SBI저축은행의 동행을 그려냈다. (자산기준, 2020.12.31)

'제 플레이가 누구에게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김아림 프로의 U.S.오픈 우승 인터뷰처럼 이 광고가 우리 이웃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SBI저축은행, 프로골퍼 '신보민', '김다은2' 2021 시즌 후원 협약

SBI저축은행은 프로골퍼 신보민, 김다은2와 2021시즌 후원 계약을 맺는 협약식을 가졌다. SBI저축은행은 매년 유망 골프 선수를 발굴해 최정상급 선수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프로골퍼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신보민, 김다은2 양선수는 탄탄한 기본기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선수다. SBI골프단은 두 선수가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국내 최정상급 선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김아림, 이소미, 박수빈3 등 총 5명의 선수를 공식 후원하게 된다.



SBI저축은행 임진구 대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SBI저축은행 임진구 대표이사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캠페인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표어를 SNS에 올리는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 된다. 챌린지에 참여한 SBI저축은행 임진구 대표이사는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건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내 게시판에서 다음 호 <SBI 체험현장> 참가 신청과 <SBI pick's>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SBI 체험현장> 참가 신청

가족, 동료,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참여하는 액티비티에 도전해 보세요. 멋진 사진으로 추억을 남겨드리고 참여하신 분께 백화점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SBI pick's> 설문 참여

임직원 여러분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콘텐츠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SBI저축은행 매거진 <희망저축>은 임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두 귀를 쫓긋 세웁니다. 홍보팀 유행근 주임(koomtle@sbisb.co.kr)에게 의견을 보내주세요.

편집후기

부캐 전성시대

이번 신입사원 인터뷰에서 본인을 나타내는 ‘부캐(副캐릭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부캐’가 유행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부캐는 게임에서 먼저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본인의 원래 캐릭터가 아닌 새로운 캐릭터를 키울 때 ‘부캐를 키운다’라고 말하죠. 요즘에는 예능프로그램 ‘놀면뭐하니’에서 유승준이 여러 부캐를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 하며 처음엔 어설피지만 도장 깨기 하듯 미션을 클리어하죠. 사람들은 본인의 팍팍한 삶에서는 갖지 못하는 부캐를 TV에서 보며 대리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부캐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캐는 ‘내 안의 또 다른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개의 부캐를 가지고 있고 특히 회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팀장님과 함께할 때는 충성심 강한 부캐, 타 부서와 협업할 때는 친절함 부캐, 아이디어 회의할 때는 트렌디한 부캐 등 평소의 저와는 거리가 조금 먼 캐릭터들이 회사에서는 마구 쏟아져나옵니다. 평소 저는 자기 밖에 모르고, 굉장히 고리타분하거든요.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생겨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잡코리아의 조사 결과, 직장인의 77%가 “회사에서의 나는 평상시와 다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직장인이 출근길에 회사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부터 본캐를 숨기고 부캐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본캐 그대로 활동하면 여러 사람에게 민폐일 테니까요. 한편으로 직장에서 다른 캐릭터로 완벽하게 변신해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강한 현타와 깊은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캐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확고한 본캐’가 있다면 부캐와 어우러져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캐를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본캐와 만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고요. 저도 ‘착한 부캐’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덕분에 본캐가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말을 들곤 합니다. 오늘도 본캐와 부캐 사이에서 수시로 변신하며 살아가는 슈퍼맨 같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홍보팀 유행근 주임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지난 호 다른 그림찾기 정답



1. 서로 다른 곳을 찾아 사진에 표시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세요.
2. 6월 21일(월)까지 홍보팀 유행근 주임(koomtle@sbisb.co.kr)에게 답을 보내 주세요.
3. 정답을 보내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